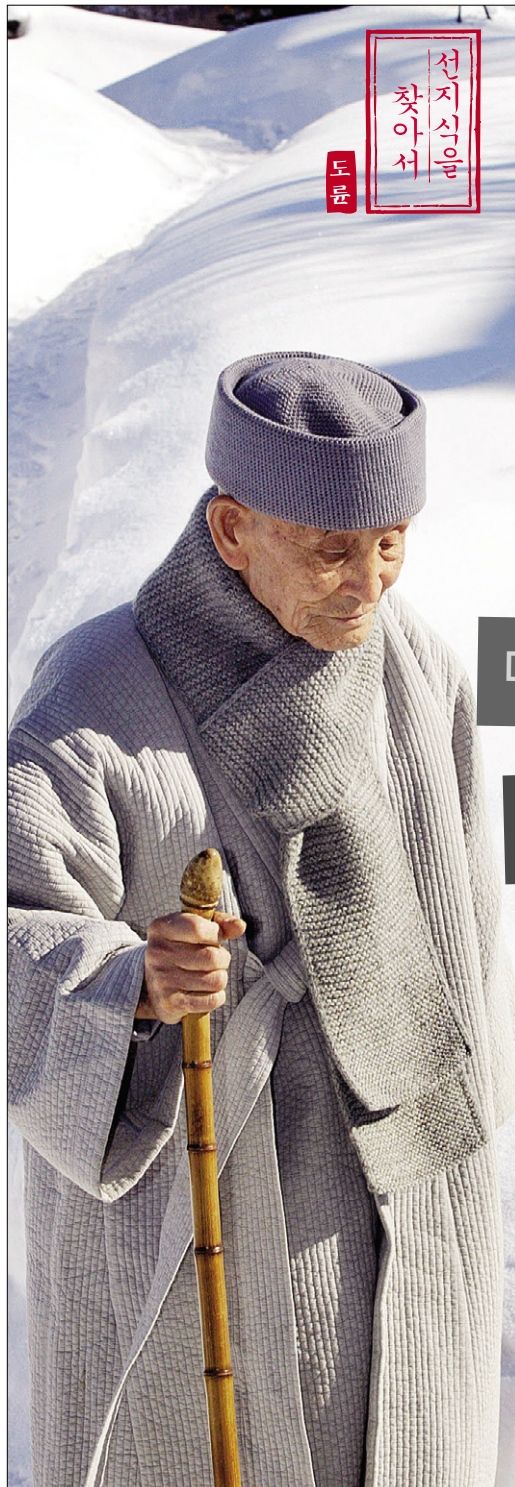


앉고 싶고 앉아서 편하면 그곳이 '자기 자리'



봉갑사 회주 도륜 스님

누구에게나 시간은 똑같이 흘러간다. 같은 시간을 흘러보내지만 사람마다 희비는 다르다. 자식이 태어나 저절로 큰 웃음이 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다른 한 쪽에서는 부모를 잃어 눈물을 흘린다. 나그네가 떠나기 전 서울의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게 개어있었다. 이른 아침부터 달려 도착했던 진주에서의 옹무를 마치고 늦은 오후에서야 남해를 돌기 시작했던 나그네. 먹구름 가득한 하늘 사이로 쏟아져 내리는 눈길을 헤치며 한밤중에야 도착한 변산반도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다.

이튿날, 날이 바뀌고 하늘은 개었지만 전날까지 내린 눈으로 여전히 세상은 온통 하얗다. 나그네는 호남 3대 명지로 꼽히는 봉래산 월명암을 찾기 위해 길을 나섰다. 밤새 제설된 덕분에 월명암 입구인

은 없었다. "거의 다 왔다"는 말은 그 스님의 기준에 따른 표현이었을 뿐, 같은 거리임에도 월명암을 본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도착하지 못했다고 투덜대는 것은 나그네의 탓 아니던가?

조금 더 능선을 따라 돌아 월명암에 발을 내딛었다. 도량은 온통 눈으로 장엄돼 있었다. 법당을 들어 삼배를 올리고 주지 천곡 스님을 찾았다. "공양부터 하자"는 스님의 말에 산에 오르며 가쁜 숨을 몰아쉬느라 있고 있었던 허기가 밀려왔다.

꽤 지나 찾아온 나그네에게 군상을 내면서도 인상 한번 찌푸리지 않고 미소머서 떠난 공양부 보살이 그리 고마울 수가 없었다. "늘 웃으며 세상을 대하는 자세가 바로 보시(願佈施)'라 하지 않았던가?

삶을 살았고, 원효는 요석 공주와 잠시 살면서 아들 설총을 낳고 다시 승려생활로 돌아갔지만, 부설은 달랐다.

도반인 영조·영희 스님과 수행하던 부설은 만경부근을 지나다 묘화 여인의 간곡한 청혼을 받았다. 묘화는 부처님 곁에 피어 있는 연꽃 한 송이를 꺾은 죄로 병어리가 돼 이승으로 추방된 절세미인. 20년 동안 인을 열지 않던 묘화가 부설을 보더니, 부설 스님과 자기는 삼생에 걸친 인연이 있는 천생배필이라며 결혼해 줄 것을 간청했다.

이를 무시하고 떠나려는 부설에게 묘화는 칼을 들고 "불도를 닦아 증생을 구제하려 하는 분이 제 한목숨 구하지 못한다면 장자 큰 뜻을 편다 해도 무슨 뜻이 있겠습니까?"하며 죽기로써 매달렸다. 묘화와의 인연을 거스를 수 없음을 깨달은 부설은 두 도반에게 도를 이뤄 자신을 가르쳐 줄 것을 당부하면서 헤어졌다.

부설 거사는 묘화와 결혼해 등운(登雲)과 월명(月明) 남매를 낳고 살면서도 수행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부설이 사는 마을 하늘엔 언제나 하얀 눈이 흩날렸다. 해서 두능리를 부설촌(浮雪村)이라 부르게 됐다. 부설 거사의 법명도 여기에서 유래 됐다.

어느 날, 오대산으로 공부하러 떠났던 영조·영희 스님이 부설 거사를 찾아왔다.

"우리는 목표한 공부를 마치고 왔네만 자네는 여자에게 빠져 나오자가 됐으니 참 딱한 일인데." 부설은 "세 개의 병에 물을 담아오나라. 서로의 공부가 얼마나 익었는지를 시험해 보리라" 하고는 들보 위에 병을 매달아 놓고 각기 병 하나씩을 치게 했다.

영조·영희 스님이 친 병은 깨지면서 병 속의 물이 쏟아졌다. 부설 거사가 내리친 병은 깨졌지만 물은 병 모양을 한 채 그대로 공중에 남아있었다.

692년 부설 거사 내외의 남매를 데리고 지난날 공부하였던 변산으로 들어가 월명암 근처에 부설암을 지었다. 묘화 부인을 위해서는 묘적암을 세웠다. 아들 등운(登雲)을 위해서는 월명암 뒤편의 등운사를, 딸 월명(月明)을 위해서는 지금의 월명암(月明庵) 자리에 월명암을 창건했다. 이름처럼 무명 속의 증상에 길을 비춰주는 달빛인 곳, 봉래산 월

명암이다. 월명암 사성선원은 부설 거사를 비롯해 묘화 부인과 등운, 월명 남매 온가족이 도통해 네 성인이 됐다는 뒤편 유래했다. 가족이 함께 도통한 것은 부설 거사 일가가 유일하지 않을까?

월명암에 도착한 후에도 사성선원에 발을 들이기는 산길을 걸은 만공이나 오래 걸리는 듯했다. 더욱이 안거중이라 나그네의 행동은 더더욱 조심스러웠다.

다시에 들어서 어디 앉을지를 고민하는 나그네에게 대중스님들이 저마다 이구동성 말을 건넸다. "거, 뒷목도 아랫목도 없으께, 아무데나 앉으소."

그래서 앉은 자리가 방 한가운데였다. 방문이 열리고 노스님 한분이 걸어 들어왔다. 미수(米壽)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나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정정한 모습, 도륜 스님이었다.

삼배를 올린 후에도 앉을 자리를 찾지 못하고 또 다시 머뭇거리는 나그네에게 스님은 "자기가 앉고 싶고, 앉아서 편하면 그곳이 자기 자리"라고 말했다.

도륜 스님의 말에 나그네는 용기를 내어 스님을 마주하는 한 편으로 엉덩이를 잠시 걸었지만 영 불편한 것이 제 자리가 아닌 듯 했다. 무엇보다 짙 짙한 온돌에 엉덩이가 뜨거워 스님의 말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

"큰스님, 선방으로 가십시오." 한 스님의 말에 도륜 스님을 비롯해 대중스님 모두 그러자고 동의했다. 자리를 옮겼다. 안거중인 선방에 들어와 앉았다. 경험만큼이나 엉덩이가 뜨겁지 않아 살 것 같았다.

사성선원에는 일곱 스님이 안거 중이다. 선원 응상방에는 선덕인 도륜 스님을 비롯해 대원 스님(前 내장사 주지)이 입승을, 지안 스님(前 실상사 주지)이 원주를, 각일·정하·성락 스님 등이 한주조 적혀 있다. 안거중인 대중이 대부분 전·현직 주지로 중진스님들이었다. 사반승인 스님들이 이관을 벌인 까닭은 무엇일까?

나그네가 도륜 스님에게 물으려던 참나, 대원 스님이 말을 꺼냈다. "그동안 소임살이에 정진을 등한 시 하지 않았나 하는 마음이 들어 후학에게 부끄럽

미수 가까워도 치열하게 수행... 후학에 부끄럽지 않으려

부설 거사 창건한 월명암서 '참나' 찾아 정진 또 정진

남여까지 수월하게 차를 몰 수 있었다. 남여부터 월명암까지는 40분 거리. 그나마 인근 실상사지 등 다른 등산로와 비교하면 가장 가까운 거리의 출발지가 남여지이다. 하지만 눈이 내린 터라 얼마나 더 걸릴지는 알 수 없었다. 나그네는 등산용 스틱과 아이젠을 차고, 짐을 주섬주섬 챙겨 겨울 산행을 시작했다.

무릎까지 쌓인 눈 사이로 고맙게도 사람이 하나 지날 만큼 길이 보였다. 누군가 산을 오르면서 지나간 자리였다. 가파른 언덕에선 숨이 턱까지 차올랐다. 그러다 잠시지만 평지를 만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숨쉬기도 몸도 편안해졌다.

"사람 사는 것도 이렇지 않을까?" 오르막이든 내리막이든 월명암에 이르는 길일뿐인데 길의 높낮이에 따라 희비가 교차하는 나그네의 마음이 간사했다. 설산을 오르는 동안 나뭇가지가 휘도록 들숨 들숨 없었던 눈덩이며, 가지 끝마다 맺힌 눈꽃이며 눈이 시리도록 볼 수 있었다. 길을 걸은 지 1시간여가 지났다. 맞은편에서 미끄러지듯 달려오는 스님을 만났다.

"스님, 월명암은 얼마나 더 가야하나요?" 나그네가 물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저 고개를 돌면 바로 예요." 팔딱 넘어갈 것 같은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고개를 넘어가지만 월명암에 도착한 것은 아니었다. 그저 나뭇가지 사이로 멀리 보이기 시작했을 뿐이었다.

"아, 속았다!" 하지만 나그네가 스님을 원망할 것

공양을 마치고 나와 대웅전 뒤편 사성선원(四聖禪院)에 오르는 길에서 만난 종각의 종에는 시가 한 수 적혀 있었다.

눈으로 보는 바가 없으니 분별할 것이 없고(目無所見無分別)/ 귀에 소리 없는 소식 들으니 시비가 공인다(耳聽無聲絕是非)/ 사랑, 분별, 시비를 모두 놓아버리고(分別是非都放下)/ 단지 마음의 부처를 보면서 귀의를 하소(但看心佛自歸依)

월명암을 창건한 부설 거사의 계승이었다. 월명암은 불가에서 가장 이상적인 곳으로 여긴다는 산상무쟁처(山上無爭處)이다. 네 성인과 여덟 현인, 열두 법사가 날 것이라는 전설이 전해지는 곳. 동해 낙산사 일출과 비견되는 운해가 어우러진 월명 일출과 낙조로 변산반도 최고의 절경을 자랑하는 월명암을 부설 거사는 신라 신문왕 12년(692)에 창건했다.

일제강점기에는 의병근거지로 활용되다 전소되고 한국전쟁 직전에는 방화로 소실되며 민족의 아픔을 같이 했다. 1954년 재건됐으나 노화된 것을 1999년 주지로 부임한 천곡 스님이 상수도시설 및 석축, 범종불사에 이어 사성선원 불사까지 원만하게 회향시켰다.

원효, 의상과 7세기 신라불교의 대표적인 인물인 부설 거사는 본래 스님이었다. 선묘의 사랑을 영주 부처사의 신장으로 승화시킨 의상은 청정비구의

도륜 스님은...
법명은 도륜(道輪), 성암(誠菴), 법호는 백은(栢隱)이다. 1927년 전남 보성에서 출생해 30대에 청화 스님을 만나 불연(佛緣)을 맺었다. 은사인 청우 스님을 모시고 대흥사 총무·재무를 지내면서 대흥사 불사를 견인했다. 강진 무위사와 보성 천봉사 주지 등을 역임하고, 현재 보성 봉갑사 회주로 있다.



2011년 세계육상대회 성공기원

약사여래 12대원 12만배 120일 기도

12만배의 주인공을 모십니다!

매일 1천배, 매 10일마다 12회 특별 축원, 천도제, 큰스님 법문
기간 2010년 1월 1일 ~ 4월 30일까지
동참금 특별 1인 2만원 천도제 영가 1위 1만원
매일 오전 9시 ~ 11시까지 기도정근 및 500배
매일 오후 2시 ~ 4시까지 기도정근 및 500배

대한불교조계종 동화사
제9교구 본사
문의 053)982-0101 www.donghwasa.net

佛紀 2554년 庚寅年 謹賀新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예

뿌리깊은 종단 보람여는 교구

제25교구 본사 奉先寺

조 실 월 윤 해 룡 회 주 밀 윤 부 립
주 지 인 목 부 주 지 해 송

총무국장 보인 기획국장 향산 교무국장 지환 재무국장 철건
사회국장 법원 포교국장 지건 총책실장 헤림

■ 부설기관

- 연꽃유치원
- 남양주시 노인복지관
- 남양주시 북부회관
- 남양주시 시니어클럽
- 남양주시 청소년일시센터
- 남양주시 지역아동보호센터
- 구리시 장자어린이집
- 구리시 인창경로식당
- 구리시 실버인력뱅크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 255번지 봉선사 전화 031)527-1956 팩스 031)527-1958